

자아정체감 수준에 따른 대학생 집단의 유형과 관련요인 분석

황매향(黃梅香)*

임효진(林孝璉)**

임지숙(任智淑)***

손보영(孫甫英)****

논문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자아정체감 수준 따른 대학생 내의 잠재 하위집단을 탐색하고 이와 같은 잠재집단을 분류하는데 영향을 주는 예측요인들을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국 23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대학생 980명을 대상으로 잠재집단분석을 실시한 후, 성별, 연령, 부모의 지지가 자아정체감 집단 분류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탐색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자아정체감의 잠재적 하위 유형은 추정된 평균점수에 따라 4개의 이질적인 하위 집단으로 분류되는데, 자아정체감의 모든 하위 요인이 가장 낮게 나타나는 '정체감-하' 집단, 하위요인의 수준이 전체집단의 평균 수준과 유사하게 나타나는 '정체감-평균' 집단, 모든 하위요인이 평균보다 유의하게 높은 수준인 '정체감-상' 집단, 모든 하위요인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며 '정체감-상'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은 수치를 보이는 '정체감-최상' 집단으로 나뉘었다. 둘째, 성별, 연령, 지각된 부모의 지지 수준에 따라 각 하위집단에 속할 확률이 차이남을 알 수 있었다. 즉 남학생일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정체감이 높은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고, 부모의 지지가 높을수록 정체감이 높거나 정체감 수준이 최상인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아졌다. 이러한 배경변수는 집단에 속할 확률을 서로 달리 예측하고 있었는데, 특히 성별과 어머니의 지지가 집단분류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가 청년기 자아정체감 발달에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이 연구의 제한점과 가능한 후속연구에 대하여 제안하였다.

주요어: 자아정체감, 잠재집단분석, 대학생, 부모의 지지

* 제1저자, 경인교육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교신저자, 전북대학교 교육학과 조교수

*** 이화여자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 이화여자대학교 박사과정 재학

I. 서론

대학생 시기는 인생의 중요한 전환기 중 하나로 성인으로서 기능하는 삶을 준비하는 시기이다(이난, 2005; Baker & Siryk, 1984). 즉 졸업 이후에 취업 혹은 진학과 같은 인생의 중요한 진로를 결정해야 하고, 이성교제를 통해 미래의 배우자상에 대해 고려하는 등 발달과정상의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고미나, 박재황, 2008; 박남숙, 2005). 따라서 이 시기에는 이후의 성공적인 장년기와 노년기를 보내기 위해 자신이 누구이며, 자신에게 의미있는 것은 무엇인지 등의 '자아에 대한 정의'를 재정립해 가는 시기라고도 할 수 있다.

Erikson(1968)에 의해 제안된 자아정체감(ego-identity)의 개념은 개인이 스스로에게 내리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해답으로 건강한 성격을 유지, 발전시켜 나가는데 필요 불가결한 요소이다(박아청, 2003). Erikson은 이러한 정체감의 형성이 자신을 탐색하는 청소년기에 전형적으로 일어나지만, 특정 문화와 역사적 사회적 맥락에 속한 개인의 경우 청소년기 이후에 일어날 수도 있다고 보았다. 최근의 시대적 배경을 보면 20대에 이루고자 하는 삶에 대한 기대가 많이 바뀌었고 대부분의 경우 중요한 정체감의 문제들이 10대를 훨씬 지난 시기에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런 현실을 고려할 때 대부분의 정체성 형성이 청소년기에 이루어진다는 기존의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고 있다(Côté, 2000; Côté & Allahar, 1996). 더구나 교육기간이 연장되고 직업세계로 전환되는 과정이 과거에 비해 늦어짐에 따라 성인의 역할을 받아들이는 시기 또한 지연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자아정체성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도 점차 늦어진다고 할 수 있다(Tannock, 2001).

한편, 대학생 시기에는 성인다운 책임과 역할수행을 요구받지만, 막상 독립하여 자신의 삶을 살기에는 물질적, 정신적으로 많은 한계에 봉착하게 된다. 대학생들은 이와 같은 반독립-반의존적 존재로서의 모호성을 탈피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혼자만의 능력이나 판단으로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그들은 부모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삶이기 때문에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을 점차 깨닫게 된다(이억범, 2007). 결론적으로 대학 시기에는 자아와 관련된 문제를 숙고하여 대안적 해결을 시행해보는 다양한 체험이 필요하고, 따라서 자아정체감은 대학생 시기에도 꾸준히 발달하고 결정될 것이라고 볼 수 있다(Waterman, 1999). 이러한 관점에서, 청년기의 삶에서 자아정체감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전생애적 관점에서의 발달일정(developmental timetables)이 지연되면서 삶의 방향을 잃고(Bynner, Ferri & Shepard, 1997), 삶의 목표를 세우고 추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Evans & Heinz, 1994).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고등학교 졸업자의 대학진학률은 2009년 81.9%나 되고 고등학교 졸업 직후 취업을 한 졸업자는 4.9%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고등교육의 확대는 자연스럽게 취업 시기를

늦추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며, 이는 경제적 독립 시기의 지체와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게 된다(안선영 외, 2011). 즉 자아정체감 형성의 시기가 청소년기가 아닌 청년기로 옮겨가고 있는 서구의 현상들이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자아정체감 형성이 지연되는 현상은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문제들과 밀접히 관련되기 때문에, 대학생들의 적응 문제에 대한 적절한 개입과 예방을 위해서도 대학생 시기에 발생하는 자아정체감의 수준과 그 발달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자아정체감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개관한 박아청과 이승국(2000)은 국내외에서 발표된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대한 연구들을 종합한 결과, 연구주제를 3가지로 분류하였다. 선행연구들은 첫째, 자아정체감 개념에 대한 연구로 주로 자아정체감 검사 개발 연구들이었으며 둘째,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로 부모의 양육태도나 가족유형, 가족구성원과의 관련을 고찰한 연구,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적응, 문화적 맥락 등과의 관련 연구,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주는 사상에 대한 연구 등이 여기에 속한다. 셋째는 성별이나 연령과 같은 인구학적 변수 및 문화권 별로 정체감 발달의 과정을 탐색한 연구들이 있다. 이와 같이 자아정체감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청소년 집단을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정체감과 기타 변수와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생애적 발달관점에서 대학생 시기를 자아정체성의 형성과 발달을 위한 시기로 새롭게 조망한다면, 대학생들이 지닌 자아정체성의 본질과 그 형태가 무엇인가에 대한 보다 탐색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먼저 대학생들의 개인별 자아정체감 수준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가라는 기술적 수준의 질문을 던져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각 개인의 자아정체감 수준을 정확히 구분하는 일에서부터 출발하여, 경험적 증거를 통해 이와 같은 수준들이 어떻게 유형화될 수 있는가를 밝히고자 한다.

이미 Erikson(1968)이 자아정체감의 개념과 그 발달단계를 제안한 이후, 지속적으로 개인의 자아정체감 수준을 지표화 또는 수량화하는 연구들이 제안되었으나 확실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선행연구들에서는 주로 연구자 임의로 자아정체감 수준을 나누어 자아정체감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등으로 구분하거나, 정체감의 개념적 요소에 따라 정체감 형성이라는 과정의 성취-미성취 여부를 통해 집단을 구분하려는 경향이 있다(Marcia, 1966; Rasmussen, 1964; Rosenthal, Gurney, & Moore, 1981).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알려진 변수 혹은 인위적 수준에 의한 집단 구분보다는 대상 내에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하위집단 또는 계층(class)이 존재하는가의 여부를 검증하고, 이와 같은 잠재집단의 구분을 예측하는 배경요인들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자아정체감의 형성과 성인기로의 이행을 위해 사회로의 진입을 당면과제로 경험하고 있는 대학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 시기적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자아정체감의 발달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에서 중요한 인구학적 변수로 밝혀진 성별과 연령을 배경요인으로 선정하고, 또한 사회적 관계와 관련하여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얻는 사회적 지지를 또다른 배경요인으로 선정하였다. 이러한 연구 가설에 기초하여 설정한 구체적 연구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 집단 내 자아정체감 수준을 중심으로 몇 개의 하위집단이 존재하며, 각 집단의 특성은 어떻게 기술될 수 있는가?

둘째, 하위집단의 분류(집단 소속성 여부)를 예측하는 배경 요인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집단분류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1. 자아정체감 연구

Erickson(1968)에 의하면 자아정체감(identity)은 “개인의 영속성, 단일성 또는 독자성, 불변성이고, 이와 같은 개인의 동일성에 대한 의식적 감각”을 말한다(p. 168). 또한 자아정체감은 성취와 같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며 고정적이거나 불변하는 것도 아닌, 즉 사회적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개선되어 가는 자신에 대한 현실감으로 간주된다(Erikson, 1982).

1980년대부터 탈공업화 사회로 옮겨간 국가들에서는, 상대적으로 고수익인 제조업이 저수익인 서비스업에 자리를 내어주면서 젊은이들로 구성된 노동시장은 붕괴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에 청년들의 노동 참여는 감소하고 청년실업은 증가함에 따라, 많은 청년들이 점점 더 경제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Bowlby & Jennings, 1999). 최근에도 많은 청년들이 주로 계약직의 저소득 직업을 가지고 있고, 이는 경제적 자급자족을 힘들게 하여 점점 더 많은 청년들이 더 나은 수익의 직업을 얻기 위해 고등교육을 받고자 하는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 결과적으로 대학들이 상당한 비율의 청년 인구를 포함하게 되었는데, 가령 미국이나 캐나다의 경우 20대 초반 인구의 반 정도가 풀타임(full-time) 학생이며, 교육에서 직업세계로의 전환 기간은 2000년을 기준으로 1985년보다 2년 더 길어진 8년으로 추정되고 있다(Bowlby, 2000). 이러한 노동시장의 변화로 인해 정규 교육기간이 늘어나고 취업시점이 연기되었으며 이는 청년들에게 심리적, 물리적 독립시기를 늦추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Hamilton & Hamilton, 2006).

이와 같은 사회적 변화와 함께 자아정체감의 형성은 더 이상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이 아니라, 청년기의 발달과업으로까지 연장되어야 한다는 관점이 대두되고 있다(Côté, 2000; Tannock, 2001). 자아정체감은 청년기에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와 갈등을 경험하고 재구성함으로써 형성되

는 개인의 성격에 핵심이 되는 특성으로서, 독립된 성인으로서의 역할 탐색을 가능하게 해주며, 이후의 안정된 성인기의 발달을 촉진하는 요소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이다(Côté & Allahar, 1996).

같은 맥락에서 최근 우리나라 학자들(정은숙, 이미숙, 2009; 한혜경, 김주희, 2007) 역시 자아정체감이 청소년기 뿐 아니라 삶의 모든 현장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것으로, 자기라는 것, 자기의 존재 증명, 진정한 자기, 주체성 등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박아청(2003) 역시 개인의 정체감 성취 또는 획득은 청장년기와 인생 후기에도 가능하다는 주장을 제기하였으며, 평생 발달심리학적 측면에서 이 방향의 연구들이 필요하다고 보았다(박아청, 2000).

자아정체감의 또다른 개념적 요소에 대하여 박남숙(2005)은 자아정체감이란 타인과 다른 고유한 개인의 개별성, 독자성의 의식 또는 자각을 의미하며, 외적 변화와 내적 갈등에 직면하면서도 일관된 자기로서 계속 존재하려하는 주체적인 자아의 통합과정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자아정체감이 강한 사람은 비록 다른 사람과 같은 동기, 흥미, 가치 등을 공유하고 있더라도 자기를 어디까지나 다른 사람과 분리된 '독특한 개인'으로 자각하여 자기일관성 내지는 전체감(feeling of wholeness)을 갖고자 하며 자기통합성(self integrity)을 이룩하고자 한다(김진아, 2004; 박아청, 2003). 결론적으로 자아정체감이 형성되었다는 것은 자기의 성격, 취향, 가치관, 능력, 관심, 인간관, 세계관, 미래관 등에 대해 비교적 명료한 이해를 하고 있으며, 그런 이해가 지속성과 통합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김진영, 2007).

이러한 자아정체감의 개념적 요소에 비추어 Rasmussen(1964)은 자아정체감의 발달이 유아기부터 시작된 여러 경험이 재통합되어 가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특히 청년기 이전에 각 발달단계의 위기를 해결해 낸 성취산물을 정체감으로 간주하였다. 발달적 관점에서 Rasmussen이 말한 자아정체감의 단계는 Erikson이 주창한 심리-사회적 발달단계의 최초 6단계(유아기~초기성인기)에서의 발달위기와 그 극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1단계 유아기의 '기본적 신뢰 대 불신', 2단계 초기 아동기의 '자율성 대 수치심', 3단계 학령전기의 '주도성 대 죄책감', 4단계 학령기의 '근면성 대 열등감', 5단계 청소년기의 '정체성 대 혼란', 6단계 초기 성인기의 '친밀감 대 소외감'과 같은 발달과업의 성취 여부로 정체감의 수준이 구분된다는 것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Rosenthal 등(1981) 역시 Erikson의 발달단계 중 최초 6단계의 발달양상을 정체감의 형성으로 보았고, 각 단계별로 위기가 성공적으로 해결되었는가 그렇지 않았는가의 여부를 가지고 정체감의 획득과 미획득을 구분하였다.

이와 같이 단계별로 자아정체감의 수준을 파악하는 방법을 통해 체계적으로 이 개념을 연구한 Marcia(1966)는 자아정체감의 발달 수준을, 수행도와 개인적인 자아정체감 위기를 경험했는가의 여부에 따라 자아정체감의 성취, 유예, 유실, 혼미의 4단계로 새롭게 분류하였다. 이는 역할을 시도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기간인 '위기'의 유무와 삶의 중요한 영역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관여'의 유무에 따라 정체감의 발달수준을 구분한다(박아청, 2003).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체감 성취(Identity Achievement)’는 자아정체감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여 가치관이나 의사결정 등에서 자기 확신이 있는 상태를 말하고, ‘정체감 유예(Identity Moratorium)’는 현재 정체감 위기 상태에 있으면서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기 위해 다양한 역할, 신념, 행동 등을 실험하고 있으나 아직 의사결정을 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며, 유예 상태에서의 위기를 해결하면 정체감 성취의 단계로 가지만, 위기 해결에 실패하면 정체감 혼미 상태가 되기도 한다. ‘정체감 유실(Identity Foreclosure)’은 부모의 역할모델의 가치나 기대를 그대로 수용하여 그들과 비슷한 선택을 하거나 사회적 가치를 그대로 답습하는 경우로, 자아정체감 위기를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결정을 한 사람들이 이 범주에 속한다. 마지막으로 ‘정체감 혼미(Identity Diffusion)’는 자아에 대해 통합되고 안정된 견해를 갖는데 실패했거나, 정체감에 대한 탐색도 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Marcia, 1966, 1976). Marcia의 이러한 정체감 집단구분은 정체성의 단계를 각 단계의 점수 평균에 1표준편차를 더한 것을 절단점(cut off point)으로 사용하여 응답자가 네 가지 단계 중 하나에서만 절단점 이상의 점수를 얻으면 그 정체성의 단계로 분류되는 형식을 취한다(Adams, Bennion, & Huh, 1989). 만일 응답자가 네 가지 단계에서 모두 절단점 미만의 점수를 얻게 되면, ‘미분화/낮은 프로파일 유예(Undifferentiated/Low Profile Moratorium)’ 단계로 분류되기 때문에, 1표준편차 이내에 있는 개인은 어느 단계로도 분류되지 않는 한계점을 지닌다.

국내에서 이루어진 자아정체감의 연구들 역시 발달단계와 이에 따른 위기극복을 정체감의 성취로 보는 입장을 취하고 있거나(김형태, 1989; 한상철, 1986), 자아정체감의 영역(예: 관념적, 대인관계적)이나 요소(예: 직업, 정치, 종교, 우정, 이성교제, 성역할, 여가활동)에 있어서 위기와 관여정도를 알아보는 Grotevant, Thorbeck과 Meyer(1982)나 Adams, Bennion와 Huh(1989)와 같은 연구자들의 접근방식을 취하여 국내연구에 적용한 경우(박아청, 1985; 송설희, 1994; 차영희, 1987)가 대부분이다. 이후 박아청(1996, 2003)에 의해 다차원적 자아정체감의 개념이 제기되어, 하위요인인 주체성, 자기수용성, 미래확신성, 목표지향성, 주도성 및 친밀성의 정도를 통해 자아정체감의 수준을 측정하는 연구들이 다수 이루어져 왔다.

요약하면, 국내외의 연구들은 자아정체감의 개념적 요소 혹은 발달단계상의 위기극복 여부에 따라 정체감의 유형을 달리 구분하고 있으며, 그 구분은 다분히 임의적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자아정체감 유형과 그 수준이 연구자에 의해 결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한 개인이 특정 정체감 유형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정체감의 높고 낮음이 정해지게 된다. 이 경우 기준에 설정된 유형 이외에 각 개인의 정체감 특성과 그 수준을 알아보기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하며, 더구나 대학생 집단과 같이 기존 이론 등에 의해 자아정체감의 종류나 유형이 아직 확실히 밝혀지지 않은 새로운 연구대상에 대해서는 이들의 자아정체감을 파악하는데 또다른 어려움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자아정체감의 유형 혹은 하위집단을 미리 상정하지 않고 연구대상 내에 존재하는 잠재집단을 탐색적으로 기술함으로써 대학생의 자아정체감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2.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연구대상의 자아정체감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에서 정체감의 형성 및 발달과 관련있다고 밝혀진 성별, 연령, 그리고 부모의 사회적 지지를 함께 살펴보았다. 자아정체감 수준의 성차에 관한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그 효과에 대해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지 않고 있는데, 가령 자아정체감 수준과 이성교제 만족도에 대한 박남숙(2005)의 연구에서는 남녀차이에 대한 분석 결과 남녀대학생의 전반적 자아정체감 수준에서 성차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우리나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아정체감 발달연구(박아청, 1994; 이경혜, 1991)에서도 성차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김진영(2007)은 중학생들의 성별, 학교별 자아정체감과 진로성숙도의 차이에 관한 연구에서 친밀성을 제외한 모든 하위영역(주체성, 자기수용성, 미래확신성, 목표지향성, 주도성)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의 자아정체감 수준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이는 김길정(2003)의 연구와 일치하며, 박영란(2002), 정미란(2005) 역시 성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Marcia(1966)는 여성과 남성은 성역할의 차이로 인하여 자아정체감이 다르다고 보았고, 우리나라에서 실시된 다른 연구들에서도 그러한 차이를 확인한 경우들이 있다. 예를 들면 자아정체감 하위영역에서는 일부 성차가 보고되었는데, 주체성과 주도성에서 남학생의 평균점수가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자기수용성에서는 여학생 점수가 남학생보다 높았다(이억범, 2007). 이와 유사하게 자아정체감의 하위요인 중 일부에서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점수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 연구(구자경, 황진숙, 2007)도 있다. 한편, 중학교에서는 자아정체감의 성별 차이를 보이지 않다가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점차로 자아정체감의 하위요인에서 성차가 나타남을 보고하는 연구(박아청, 2004)도 있다. 따라서 자아정체감의 형성과 발달에 있어서의 성차는 연구에 따라 다르게 보고되고 있어 추후 연구에서 보다 깊이있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한편, 자아정체감은 그 개념에서도 나타나고 있듯이 연령이 증가할수록 그 수준이 높아지고, 많은 기존 연구를 통해서도 대체로 연령의 증가에 따라 정체감의 성취 수준도 증가하는 경향성이 확인되었다(Waterman, Geary, & Waterman, 1974). 일례로 Waterman 등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1학년부터 4학년까지의 자아정체감 단계의 변화를 연구하였는데, 연구결과 정체감 수준의 형성은 대학 1~2학년 사이에 이루어지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정체감 유예나 미숙 수준 상태의 학생들이 줄어들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Meilman(1979)은 5개의 각기 다른 연령군(12, 15, 18, 21, 24세)을 추출하여 정체감 수준을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12세의 연령군에서는 정체감 성취 수준을 발견하지 못했으며, 24세의 연령군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 56%가 자아정체감 성취 수준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여 자아정체감은 연령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고 결론내린 바

있다.

국내연구에서도 자아정체감은 학년이 높을수록 평균점수가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이억범, 2007). 박아청(1984)은 Marcia의 이론을 수정하여 ‘아이덴티티 지위 조사표’를 사용하여 한국 대학생의 학년별 집단을 조사하였는데, 남자가 여자보다 가치와 직업 영역에서 모두 높은 수준에 있었다고 보고하였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정체감 성취 수준에 있음이 나타났다고 하였다. 허귀선(1985) 역시 대학생의 자아정체감 수준은 고학년일수록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특히 1학년과 4학년 사이에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고 보고했다.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자아정체감 형성 정도를 비교한 연구(최정훈, 이훈구, 한종철, 1988)에서도 고등학생보다 대학생 집단이 자아정체감 형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도 자아정체감의 수준과 연령이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일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체감과 관련된 중요한 배경요인은 부모의 지지이다. 부모 지지는 아동기 뿐 아니라 청년기에도 역시 필요한 자원으로 간주된다(Furman & Buhrmester, 1992). 부모의 지지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은 다양한 영역에 걸쳐 연구되었는데, 먼저 Avison과 McAlpine(1992)의 연구에 의하면 부모의 지지는 청소년기 높은 수준의 심리사회적 자원과 관련 있었으며, Holahan, Valentiner와 Moos(1995) 역시 부모의 지지 수준이 높은 청소년들이 부모의 지지 수준이 낮은 청소년들보다 적응도도 높고 심리적 어려움도 덜 느끼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Peterson, Luborsky와 Seligman(1980) 또한 부모와 좋은 관계를 맺고 그들과 충분한 의사소통을 하는 청소년들은 자기존중감이 높으며, 보다 긍정적인 정서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대학생을 연구대상으로 한 Baker와 Siryk(1984)의 연구에서도, 적응 수준이 높은 학생들의 부모는 보다 지지적이고 보살피주는 방식으로 자녀의 대학생활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적응 수준이 낮은 대학생의 부모는 냉랭하고 거리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연구에서도 부모의 지지와 지각된 집으로부터의 거리, 대학생의 심리적 적응의 관계를 살펴본 한종철과 지선근(1999)의 연구에서 부모의 지지는 학업적 적응, 사회적 적응, 개인-정서적 적응, 대학 환경에의 적응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부모의 지지가 높으면 대학생활 적응력 또한 높아지며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남동하, 2006), 부모의 지지는 자아정체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자아정체감을 매개로 진로결정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박미경, 2008; 신종임, 2010)도 보고된 바 있다. 이와 같은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부모의 지지는 대학생의 심리사회적 적응, 자기존중감, 긍정적 자아개념 형성을 통해 자아정체감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한 변수 중 하나로 보여진다.

자아정체감은 경험과 인지를 통해서 형성되고 또한 도전하는 일에서 성공을 거둘 때 자신감이 형성되어 자기 스스로를 인정하게 되는데, 부모, 교사와 같이 의미있는 타인들에게 강한 영향을 받는다(Wynn, 1998, 박안석, 2003에서 재인용). 대학생은 법적으로 운전, 투표, 음주, 거주장

소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며, 학교를 그만두거나 직업을 갖거나 임대 혹은 결혼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지만, 동시에 경제적인 현실에서는 부모에게 의존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는 성인이지만 주체적으로 승인되지 못하는 모순이 형성된다(Aquilino, 2005). 또한 대학생들이 경제적으로 또한 주거적으로 독립하는 것은 수년에 걸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 시기의 부모는 자녀에 대한 통제권을 포기하나 그들에게 돌봄(care)을 제공하고 그들의 성장을 위한 물질적 지원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시대적 특성에 맞춰 18세에서 24세 사이에 부모와 동거하는 성인들의 비율은 1970년 이후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 미국의 2000년의 인구조사 데이터는 이 나이대의 56%의 남성과 43%의 여성이 부모와 함께 살고 있음을 보여준다(Aquilino, 2005). 이와같은 청년기 부모와의 동거의 증가로 인해 그만큼 청년들은 함께 사는 부모의 영향을 더 받게 된다.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Perosa, Perosa, & Tam, 2002)에서 나타난 것처럼, 정체성 획득은 개인이 그들의 부모와 친밀한 느낌을 가지면서도 독립적이고 유능하다고 느낄 때 보다 촉진되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수를 알아본 박성옥과 어은주(1994)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양육태도 및 가족간의 자율감과 친밀감으로 표현되는 가족의 기능도가 청년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도 대학생의 자아정체감 유형을 파악하는데 부모의 지지여부를 주요 변수로 간주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는 전국 23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대학생 98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가능한 여러 대학의 대학생을 표집하기 위해 한 대학에서 한 강좌씩 표집하여 대표성을 살리고자 하였다. 설문에 응한 90%이상의 학생이 4학년에 편중되어 있었고, 동일 학년 내에서도 다양한 연령의 차이(20세~32세)를 보이는 관계로, 연구대상은 4학년으로 한정하였다. 또한 대학 4학년의 경우, 졸업과 취업이라는 중요한 인생 과업을 준비하는 시기이니 만큼 다른 학년에 비해 대학생 시기의 자아정체감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수집된 질문지 중 다수의 문항을 빠뜨리고 응답한 사람과 응답자의 연령이 평균에서 3표준편차를 벗어나는 응답자(32세 이상)를 제외한 총 968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참여자의 평균연령은 24.7세(SD=1.83)였으며, 참여자의 성별은 남학생이 484명(50.0%), 여학생이 484명(50.0%)이었다.

2. 연구도구

대학생의 자아정체감을 측정하는 도구로 본 연구에서는 박아청(1996)이 개발한 한국형 자아정체감 검사를 신순란(1999)이 수정, 보완하여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한국형 자아정체감 검사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총 4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요인으로는 자기의 역할, 환경에 영향을 주는 느낌의 정도를 나타내는 주체성, 자신의 능력, 재능에 대한 신뢰의 정도를 의미하는 자기수용성, 시간적 경과에 대한 희망의 정도를 보여주는 미래확신성, 실현하려는 의지의 정도를 설명하는 목표지향성, 자신의 역할에 대한 인지능력의 정도를 뜻하는 주도성,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노출 정도를 보여주는 친밀성 등 총 6개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요인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신순란(1999)의 연구에서는 .79~.86 수준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전체 내적합치도는 .95, 하위요인은 .83에서 .93의 범위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생의 자아정체감 수준과 관련이 있는 배경변수로 부모의 지지와 성별, 연령을 고려하였는데, 부모의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House(1981)의 정의를 바탕으로 박지원(1985)이 개발한 사회적 지지 척도의 4가지 지지 영역에 대해 단일 문항으로 부모 각각의 지지의 정도를 측정하였다. House(1981)는 사회적 지지를 정서적 지지(공감이나 배려 등, 사람과 사람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지지), 도구적 지지(타인을 위해 일이나 돈 또는 물건을 빌려주는 등의 직접적인 원조), 정보적 지지(전문적인 지식 등, 유익한 정보를 전해주는 지지), 평가적 지지(상대방의 일이나 태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거나 의견에 찬성하는 등의 지지)의 4종류로 분류하였으며, 이들의 상호작용이 사회적인 지지라고 정의하였는데, 이 연구에서는 이 중 부모를 각각 사회적 지지원(source)으로 분리하여 대학생의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주는 배경변수로 보고자 하였다. 부모 지지 척도는 5점 리커트 척도로 부와 모 각각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구 전체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부의 지지 .82, 모의 지지 .79로 나타났다.

3. 분석방법

이 연구에서는 자아정체감의 구성 요인에 따라 하위집단 또는 계층(class)이 존재함을 가정하고, 계층에 영향을 주는 배경 변수를 포함하여 몇 개의 계층이 존재하는가를 자료에 근거하여 분석하는 잠재집단분석(Latent Class Analysis) 방법을 사용하였다. 잠재계층 분석은 표집 자료 내 한 개 이상의 하위집단이 존재함을 가정하여 이에 대해 탐색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다. 이 분석은 서로 다른 모수치 간의 평균과 분산 간의 독특한 프로파일을 추정하는데 유리하며, 특히 각 계층 간의 구별을 최적화하고 모수치의 추정을 보다 정확히 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권재기, 2011; Muthén & Muthén, 2000).

잠재집단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 먼저 정보적합도 지수인 아카이케 정보량 기준(AIC: Akaike Information Criteria)이나 베이저안 정보량 기준(BIC: Bayesian Information Criteria)을 사용한다. 이들은 표집의 크기나 추정모수의 개수를 고려하여 수치가 작을수록 좋은 모형으로 간주된다(Nylund, Asparouhov, & Muthén, 2007). 정보량기준과 함께 Vunog-Lo-Mendell-Rubin의 조절 우도비 검사(Adjusted Likelihood Ratio Test [LMR-LRT]) 지수를 사용하여 집단의 수가 k 와 $k-1$ 로 각각 추정된 두 모형을 비교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검증으로 두 모형 중 어느 모형이 자료에 더 적합한지를 알아보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LRT 수치는 보다 적은 수($k-1$)의 모형을 지지하는 것을 의미한다(Nylund et al., 2007).

집단의 수가 확인되면, 개별사례가 집단에 얼마나 정확히 분류되었는가를 엔트로피(Entropy) 지수를 통해 확인하는데, 엔트로피 지수는 0에서 1까지의 범위를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분류가 정확함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분류된 집단을 비교함에 있어서 실제적 중요성을 가지기 위해 표본 대비 집단의 최소비율을 적용하는데, 즉, 모든 집단이 표본수의 1%이상의 사례수를 포함하는지를 확인한 후 이와 같은 모형에서 집단 간 비교가 가능하다고 본다(Hix-Small et al., 2004, 권재기, 2011에서 재인용).

잠재집단분석과 함께 자아정체감 수준에 따른 하위집단 간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카이-스퀘어 검증과 일원변량분석(ANOVA)을 실시했으며, 대학생의 자아정체감 수준에 따른 집단 분류를 예측하는 배경변수의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 다항로지스틱 분석(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에는 SPSS 19.0과 Mplus 6.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IV. 연구결과

1.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자아정체감 하위요인과 집단 구분을 위해 사용한 배경변수 간 상관을 살펴보면, 자아정체감 하위요인 간에는 서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아정체감 하위요인들과 연령 및 부모 지지는 모두 정적 상관을 보였다. 즉 정체감이 높을수록 지각된 부모의 지지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한편, 부모의 지지는 연령에 따라서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나, 연령에 따른 지지 하락 경향은 모의 지지의 경우에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표 1> 자아정체감 하위요인과 배경변수 간 상관 및 기술통계치

	1	2	3	4	5	6	7	8	9
1. 주체성	1								
2. 자기수용성	.61**	1							
3. 미래확신성	.56**	.52**	1						
4. 목표지향성	.69**	.57**	.53**	1					
5. 주도성	.52**	.48**	.42**	.61**	1				
6. 친밀성	.48**	.59**	.38**	.53**	.63**	1			
7. 연령	.01**	.09**	.08**	.12**	.15**	.10**	1		
8. 부의 지지	.22**	.32**	.17**	.21**	.12**	.19**	-.02	1	
9. 모의 지지	.19**	.28**	.16**	.19**	.09**	.18**	-.07*	.63**	1
평균	3.78	4.23	3.60	3.51	3.48	3.44	24.68	4.10	4.27
표준편차	0.60	0.65	0.86	0.68	0.72	0.81	1.83	0.86	0.74

** $p < .05$

2. 하위집단 수의 결정

자아정체감 수준에 대한 하위집단 구분을 위해, 대학생들의 자아정체감 하위요인과 계층 구분에 영향을 주는 배경변수를 함께 투입하여 잠재계층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분류된 계층의 적절한 수를 결정하고 자아정체감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잠재계층의 수를 2에서부터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각 잠재계층에 대한 적합한 변화함수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각 잠재계층의 수와 모형적합도 지표들을 고려했을 때, 4집단 모형이 자료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AIC=9708.80, BIC=10015.94, LRT p -value=.031). 4집단 모형은 AIC와 BIC 지수가 가장 낮으며 엔트로피 지수의 경우 5집단보다 작지만 1에 가까우므로 양호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LRT검증 결과 유의한 p 값을 가지고 있으므로 5집단 모형에 비해 자료에 보다 적합하다 할 수 있다. 5집단 모형의 경우 사례수가 0인 집단을 두 개 포함하고 있으므로, 집단별 비율을 고려했을 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위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4집단 모형이 가장 자료에 더 부합하다고 보여진다.

<표 2> 모형적합도 지수

집단	AIC	BIC	Entropy	LRT	집단별 비율(%)				
					1	2	3	4	5
2	10641.72	10783.10	.824	.000	52.1	47.8			
3	10001.40	10225.66	.831	.000	30.2	51.6	18.2		
4	9708.80	10015.94	.831	.031	16.2	33.6	43.1	7.0	
5	10069.40	10459.42	.885	.239	0	30.2	51.6	18.2	0

Note: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a; 아카이케 정보량 기준), BIC(Baysian Information Criteria; 베이저안 정보량 기준), 우도비검사 LRT(Vuong-Lo-Mendell-Rubin Likelihood Ratio Test)

이어 각 자아정체감 하위요인의 수준에 따른 집단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추정된 평균 점수에 따라 집단이 나뉜다고 볼 수 있다(<표 3>과 [그림 1] 참조). 구체적으로 보면 집단 1은 전체 연구대상의 16.2%를 차지하며, 자아정체감의 하위요인이 모두 가장 낮게 나타나는 집단으로 '정체감-하' 집단이라고 명명하였고, 집단 2는 전체의 33.6%로 정체감 하위요인이 모두 평균보다 유의하게 높은 수준을 보고하는 집단으로 '정체감-상'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집단 3은 전체의 43.2%로 정체감 하위요인의 수준이 전체집단의 평균 수준과 유사하게 나타나는 관계로 '정체감-평균'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집단 4는 가장 특이한 패턴을 보이는 집단으로 전체의 7.0%로 다른 집단에 비해 사례수가 가장 적게 차지하는데, 이 집단의 경우 정체감의 모든 하위요인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고하였으며, '정체감-상' 집단과 비교해도 유의하게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어 '정체감-최상' 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집단 간 정체감 요인의 수준의 차이는 <표 4>에 제시되었듯이 분산분석결과와 사후검증을 통해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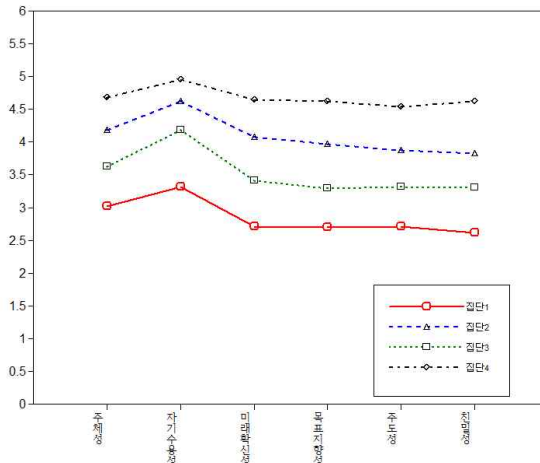
<표 3> 잠재집단별 자아정체감 하위요인(평균 및 표준편차)

	집단1 (N=157)	집단2 (N=325)	집단3 (N=418)	집단4 (N=68)
	16.2%	33.6%	43.2%	7.0%
	정체감-하	정체감-상	평균	정체감-최상
주체성	3.02(0.05)	4.18(0.04)	3.62(0.05)	4.68(0.07)
자기수용성	3.31(0.08)	4.63(0.04)	4.18(0.05)	4.96(0.02)
미래확신성	2.71(0.07)	4.07(0.05)	3.41(0.07)	4.65(0.14)
목표지향성	2.70(0.05)	3.97(0.05)	3.29(0.05)	4.62(0.09)
주도성	2.71(0.07)	3.87(0.06)	3.32(0.04)	4.54(0.09)
친밀성	2.61(0.08)	3.82(0.07)	3.30(0.05)	4.63(0.09)

<표 4> 잠재집단별 자아정체감 하위요인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사례수=968)

	제공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Scheffe
주체성	218.18	3	72.73	525.55***	1<3<2<4
오차	133.40	964	0.14		
합계	351.58	967			
자기수용성	241.65	3	80.55	477.23***	1<3<2<4
오차	162.71	964	25		
합계	404.36	967			
미래확신성	298.99	3	99.66	232.34***	1<3<2<4
오차	413.52	964	0.43		
합계	712.51	967			
목표지향성	288.57	3	96.19	591.30***	1<3<2<4
오차	156.82	964	0.16		
합계	445.38	967			
주도성	241.69	3	80.56	291.57***	1<3<2<4
오차	266.37	964	0.28		
합계	508.06	967			
친밀성	272.05	3	90.68	243.14***	1<3<2<4
오차	359.53	964	0.37		
합계	631.58	967			

*** $p < .001$



[그림 1] 하위집단에 따른 자아정체감 평균(추정값)

3. 자아정체감 하위집단의 특징

다음으로는 성별, 연령, 부모 지지와 같은 배경변수를 이용하여 자아정체감 하위집단들이 각 어떠한 특징을 나타내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성별과 연령에 대한 집단 간 차이는 <표 5>에 제시되어 있으며, 정체감이 낮거나 평균인 집단(집단 1과 3)의 경우 남자보다 여자가 많고 24세 이하인 사람들이 많은 반면, 정체감이 평균보다 높은 집단들(집단 2와 4)의 여자보다 남자가 많으며 25세 이상의 학생들이 많이 분포되는 특징을 보였다.

부모에게서 받는 사회적 지지에 따른 집단별 특징을 살펴보면, 부와 모의 지지 모두 동일한 패턴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정체감이 높은 집단들(집단 2와 4)이 정체감이 평균이거나 낮은 집단(집단 1과 3)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으며, 정체감-하인 집단은 정체감-평균인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표 6 & 7>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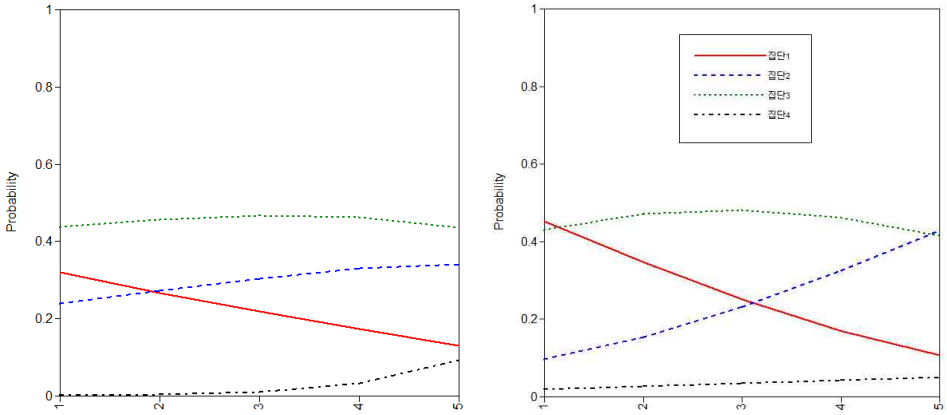
<표 5> 잠재집단별 배경변수 특성 (사례수=968)

	집단1 정체감-하 (n=157)	집단2 정체감-상 (n=325)	집단3 정체감-평균 (n=418)	집단4 정체감-최상 (n=68)	전체 (N=968)	χ^2
남	57	194	176	57	484	65.53***
여	100	131	242	11	484	
25세이상	59	198	179	44	469	30.67***
24세이하	98	138	239	24	499	

*** $p < .001$

<표 6> 잠재집단별 부모지지(평균 및 표준편차)

	집단1 정체감-하 (n=157)	집단2 정체감-상 (n=325)	집단3 정체감-평균 (n=418)	집단4 정체감-최상 (n=68)	전체 (N=968)
부지지	3.63(1.03)	4.32(0.70)	4.05(0.86)	4.46(0.65)	4.10(0.86)
모지지	3.92(0.90)	4.39(0.69)	4.25(0.70)	4.63(0.42)	4.27(4.27)



[그림 2] 성별, 연령, 모의 지지, 부의 지지에 따라 하위집단에 속할 확률

마지막으로 성별, 연령, 부모 각각의 지지의 배경변수가 자아정체감 하위요인에 따른 집단 구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다항로지스틱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는 각 집단을 준거집단(reference group)으로 설정한 후 비교대상 집단(target group)과 비교하여 성별, 연령, 부지지, 모지지의 변수들이 어떻게 잠재집단 분류(classification)를 예측하고 있는가를 살펴 보았다.

<표 8>에 제시된 표준화계수들은 집단 분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상대적 예측력의 정도를 나타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정체감-하 집단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남자일수록 높은 정체감을 보이는 집단(집단 2와 4)들에 속할 확률이 높으며, 나이가 많을수록 정체감-상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다. 또한 모의 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정체감-최상 집단에 속할 확률이 유의하게 높으며 부의 지지가 클수록 평균집단과 정체감-상, 정체감-최상 집단에 속할 확률이 유의하게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배경변수의 자아정체감 집단 예측(표준화계수)

비교집단	배경변수	준거집단			
		집단1 정체감-하	집단2 정체감-상	집단3 정체감-평균	집단4 정체감-최상
집단1 정체감-하	성별		.53*	.04	1.83***
	연령		-.17*	-.06	-.07
	모의 지지		-.31	-.02	-1.31***
	부의 지지		-.73***	-.04*	-.60**
집단2 정체감-상	성별	-.53*		-.48*	1.30**
	연령	.17*		.11*	.09
	모의 지지	.31		.09	-1.00*
	부의 지지	.73***		.38*	.13
집단3 정체감-평균	성별	-.04	.48*		-1.78***
	연령	.06	-.11*		.02
	모의 지지	.02	-.09		1.09**
	부의 지지	.04*	-.38*		.25
집단4 정체감-최상	성별	-1.83***	-1.30**	1.78***	
	연령	.07	-.09	-.02	
	모의 지지	1.31**	1.00*	-1.09**	
	부의 지지	.60**	-.13	-.25	

* $p < 0.05$, ** $p < 0.01$, *** $p < 0.001$

정체감-상 집단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여자일수록 정체감-하 집단과 정체감-평균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아지고 남자일수록 정체감-최상 집단에 속할 확률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가 많을수록 평균이나 정체감-하 집단에 속할 확률이 낮아지며, 부와 모의 지지가 높을수록 정체감-하 또는 정체감-평균 집단 소속 확률은 낮아진다.

다음으로 정체감-평균 집단을 기준으로 보면 남자일수록 정체감이 높은 집단들에 속할 확률이 높아진다. 부모 지지의 경우 모의 지지가 높을수록 정체감-최상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고, 부의 지지가 높을수록 정체감-상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아지고 정체감-하 집단에 속할 확률은 낮아진다.

마지막으로 정체감-최상 집단이 기준이 되면, 여자일수록 다른 세 집단에 속할 확률은 높아지지만 모의 지지가 높을수록 다른 세 집단에 속할 확률이 낮아진다. 부의 지지를 높게 지각할 경우에는 정체감-하 집단에 속할 확률만 유의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다항로지

스틱 분석의 결과로 성별, 연령, 부모의 지지가 하위집단에 속할 확률을 각기 다르게 예측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그 예측력의 정도도 상대적으로 다름을 알 수 있었다. 즉 표준화계수의 크기를 볼 때 대체적으로 성별과 어머니의 지지는 연령이나 아버지의 지지보다 특정 집단에 속할 확률과 높은 관련이 있어 보이며, 상대적 예측력도 크다고 볼 수 있다.

V. 논의

이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아정체감의 유형을 분류하고 각 유형별 특징을 탐색적으로 연구하여 중요한 생애 전환기의 발달과업인 자아정체감의 형성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연구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 대학에 재학 중인 남녀 4학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아정체감, 성별, 연령, 부모지지에 기초하여 잠재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의 주요 결과에 대한 요약 및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를 통해 4개의 이질적인 하위집단이 경험적으로 분류되었고, 각 집단의 특성을 반영하여, '정체감-최상', '정체감-상', '정체감-평균', '정체감-하'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자아정체감 하위요인의 모든 점수에서 다른 집단보다 높은 수준을 보인 '정체감-최상' 집단은 전체의 7.0%, 자아정체감 하위요인의 점수가 모두 평균보다 높은 '정체감-상' 집단은 전체의 33.6%, 자아정체감 하위요인의 수준이 전체 집단의 평균 수준과 유사한 '정체감-평균' 집단은 전체의 43.2%, 자아정체감 하위요인의 모든 점수가 가장 낮은 '정체감-하' 집단은 전체의 16.2%로 나타났다. 4개 잠재집단별 성별, 연령, 부모 지지의 차이를 교차분석과 변량분석을 통해 검증해 본 결과, 각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정체감이 높거나 최상인 집단에는 남학생과 연령이 높은 학생들이 많이 분포하였고, 부모의 지지를 높게 지각하는 학생들이 많았다. 상대적으로 정체감이 낮은 집단에는 여학생과 연령이 낮은 학생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즉, 이 연구에서 도출된 4개의 자아정체감 수준별 하위집단은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집단으로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 확인한 질적으로 다른 4개의 하위집단은 표집자료의 특성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그 접근방식이 지금까지와는 다르다는 데 의의가 있다. 즉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자아정체감의 수준을 임의적으로 구분하는데 그쳐 연구자료의 특성을 그대로 드러내기가 어려웠으나 이 연구에서는 확률적 추정을 통해 새로운 방법으로 집단 분류를 시도하고자 하였다.

둘째, 이 연구를 통해 확인된 4개 집단에 대한 연구대상의 분포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다수의 대학생들이 정체감-상 집단과 정체감-평균 집단에 속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체적으로 보아 자아정체감 수준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표집된 대상이 대학교 4학년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동일한 학년 내에서도 정체감이 낮은 학생들이

16%이상 발견되었다는 것은, 대학교 4학년 시기가 진로와 취업에 중요한 시점이나만큼 이들이 또래보다 모종의 위기를 겪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뿐만 아니라 이 집단은 이미 자아 정체감 형성이 늦춰진 집단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후 반세기만에 폐허에서 기적을 낳을 수 있었던 밀바탕에는 교육에 대한 높은 가치부여와 열망이 존재했다. 이러한 교육에 대한 열의가 고등교육인 대학교육의 평준화를 가져왔으나 동시에 자녀는 대학교 진학을 위해 공부를 하고, 부모는 그러한 자녀를 정서적, 물리적으로 지지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구조를 낳았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청소년들은 심리적 독립과 함께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하지 못한 채 부모의 지지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상이 자아정체감 형성을 지연시키고, '정체감-하'의 집단 발생은 부분적으로 여기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낮은 자아정체감의 원인을 밝히거나 또래들과 구분되는 '정체감-하' 집단에서 정체감 지연 혹은 혼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구체적으로 탐색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이들의 자아정체감 상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낮은 자아정체감의 이유를 후속 연구를 통해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자아정체감 상, 중, 하 이외에 '정체감-최상' 집단은 이 연구를 통해 새롭게 발견된 집단으로 선행연구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집단이다. 이 연구에서 '정체감-최상'의 집단이 발견된 것은 지금까지 많은 연구에서 자아정체감의 수준을 '정체감 획득-미획득' 또는 '정체감 상-중-하' 등으로 구분하던 것과는 다른 결과이다. '정체감-최상' 집단은 그 크기는 작지만, 그 특성에 있어 다른 집단과 확연히 구분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즉 다른 세 집단들은 기존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성별이나 연령 혹은 사회적 지지에 의해 집단에 소속될 확률이 달라졌다면, 이 '정체감-최상' 집단은 이러한 배경요인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있다(그림 2 참조). 이러한 집단이 다른 대학생 집단 혹은 중·고등학교 집단에도 일관되게 나타나는지, 다른 문화적·사회적 배경을 가진 집단에서도 나타나는 것인지, 우리나라 대학생들만의 독특한 현상인지 등의 후속 연구를 통해 집단의 특성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탐색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집단유형과 배경변수의 관련성을 검증한 결과, 먼저 성별로는 여학생일수록 자아정체감이 낮은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은 반면, 남학생일수록 자아정체감이 높은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아짐을 발견하였다. 성별과 관련하여서는 기존에도 성차가 없다는 연구결과(박남숙, 2005; 박아청, 1994; 박아청, 우채영, 2008; 박영란, 2002; 이경혜, 1991; 정미란, 2005)와 하위영역별로 남학생 혹은 여학생이 자아정체감이 더 높게 나타난 연구결과(박아청, 2004; 이익범, 2007)가 혼재하는 상황이다. 이 연구에서는 남학생일수록 자아정체감이 높은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이는 남학생들이 주체성과 주도성 등의 '자아주장'을 나타내는 정체감 하위요소 및 전체 정체감 척도에서 여학생에 비해 높은 점수를 얻었다는 연구들(구자경, 황진숙, 2007; 이익범, 2007)을 뒷받침한다고도 볼 수 있다. 또한 이 연구의 대상이 대학교 4학년이었고, 4학년 남학생의 경우 군

대에 다녀온 경우가 많아서 비교적 자아정체감이 안정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한편, 연령이 높을수록 '정체감-상'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아정체감이 높아진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박아청, 1984; 이억범, 2007; 최정훈 외, 1988; 허귀선, 1985; Waterman et al., 1974)와 일관된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정체감-최상' 집단은 연령의 증가에 따라 그 집단에 속할 확률이 거의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으므로 단순히 나이가 많다고 정체감이 발달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연령과 정체감의 관계에 있어서 보다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부모의 지지에 있어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지지가 높을수록 '정체감-하' 집단에 속할 가능성은 줄어들고, 정체감이 높은 집단들에 속할 가능성은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부모의 지지와 긍정적 피드백이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형성을 촉진한다는 선행연구 결과(박성옥, 어은주, 1994; Wynn, 1998, 박안석, 2003에서 재인용)와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정체감 형성에 정적인 상관이 있다는 국내외의 연구결과(신종임, 2010; 유영미, 문승태, 2005; Perosa et al., 2002)와 일치하고 있다. 이는 대학생으로 성장한 시기에도 부모의 정서적, 물질적, 정보적 등의 지지가 정체감 형성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부모의 지지를 통해 자녀는 자신을 타인과 구별되는 존재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개성, 특징, 능력, 흥미, 가치관 등에서 일관성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갖게 되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박미경, 2008; 신종임, 2010).

한편, 본 연구에서는 다항 로지스틱 분석을 통해 성별, 연령, 지지와 같은 변수가 집단구분에 어느 정도의 예측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특히 성별이나 어머니의 지지가 연령 혹은 아버지의 지지보다 해당 집단에 속할 확률과 유의하게 높은 상관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성별에 대해서는 남성과 여성의 성역할 차이로 인한 자아정체감 형성에 차이가 있음을 밝힌 선행연구(구자경, 황진숙, 2007; 박아청, 2004; 이억범, 2007; Marcia, 1966)와도 일치하는 부분이다. 또한 자아정체감의 획득은 부모와의 친밀한 느낌을 가지면서도 독립적이고 유능함을 느낌에 따라 촉진되는 경향이 있는데(Perosa et al., 2002), 아버지보다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정서적인 친밀감 및 독립감에 대한 지지를 더 많이 제공받기 때문이라는 선행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대학생 자아정체감의 유형화 혹은 집단의 구분에 있어서 배경요인의 중요도를 판단하는데 유리한 정보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단순히 정체감 점수의 높고 낮음으로 집단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배경변수의 영향력을 감안하여 집단을 나눌 때 연구대상을 보다 정확히 구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제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 연구는 자아정체감 수준에 따라 대학생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잠재집단의 유형을 탐색한 것으로 실제 현장에 활용할 수 있는 유형 구분의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발견된 4개의 집단을 구분

해 줄 수 있는 기준점을 확인하고, 이를 적용할 구체적 절차를 밝히는 연구가 후속되기를 기대한다. 둘째, 이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는 대학생들의 자아정체감 수준에 대한 탐색의 출발점으로서 의미를 갖는 연구결과로 이를 통해 한 개인의 자아정체감 수준을 결정하는 데는 보다 주의를 요한다. 잠재집단 분석은 어디까지나 확률적 추정에 근거한 것으로, 성별, 연령, 부모 지지 이외의 변수가 추가됨에 따라 동일 개인이 특정 집단에 속할 확률이 각각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한 개인이 정체감-상 혹은 정체감-하의 발달 수준에 도달하였는가의 여부는 면담, 관찰, 기타 정보에 의해 추가적으로 탐색될 필요가 있다. 셋째, 잠재집단 분류과정에서 고려되었던 성별과 연령이라는 독립변인의 효과에서도 유의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다. 군복무 등의 이유로 남자대학생의 평균 연령이 여자대학생의 평균연령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성별과 연령에 따른 자아정체감 수준을 판단함에 있어 이러한 관련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대학생의 경우 부모의 지지가 정체감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부모와의 동거여부나 심리적, 물리적 거리감 등의 요인이 상호작용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로 부모와의 분화 수준 및 집으로부터의 물리적 거리가 멀수록 대학생의 적응을 잘하고 부모와의 분화는 대학생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선행연구 결과도 있다(한종철, 지선근, 1999). 뿐만 아니라 부모 이외의 타인이나 대학의 풍토 등 다른 환경의 영향도 이 연구에서는 다루지 못하였으므로, 자아정체감 집단을 구분해 주는 환경요인에 대한 검토가 후속연구를 통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대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된 것으로 대학생 전체에 일반화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동일한 학년과 비슷한 연령대에서도 자아정체감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음을 발견한 것은 본 연구의 의의라고 할 수 있지만, 향후에는 모든 학년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청소년기와 청년기의 정체감이 어떻게 달리 유형화될 수 있는지 그 차이를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참고문헌

- 고미나, 박재황 (2008). 대학생의 자아정체감과 자아존중감 수준에 따른 진로탐색행동 및 진로결정 관계분석. **진로교육연구**, 21(3), 69-85.
- 구자경, 황진숙 (2007). 청소년의 가정, 학교 및 대중매체환경과 자아정체성 간의 관계. **상담학연구**, 8(4), 1623-1636.
- 권순명 (1993). 지각된 양육경험과 자아정체감, 통제귀인간의 관계. 박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 권재기(2011). 집단따돌림 피해경험의 발달양상과 내면화, 외현화 문제행동의 변화. **한국아동복지학**, 34, 95-126.
- 김길정 (2003). 고등학생의 자아정체감과 진로성숙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 김진아 (2004). 대학생의 자아정체감 형성발달에 관한 고찰. **제주관광대학 논문집**, 10, 31-43.
- 김진영 (2007). 중학생들의 성별, 학교별 자아정체감과 진로성숙도의 차이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 김형태 (1989). 청소년기 자아정체감의 발달 및 측정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 남동하 (2006). 대학생의 학과선택에 따른 부모의 지지가 자아존중감과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 박남숙 (2005). 대학생의 자아정체감 수준이 이성교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1), 197-215.
- 박미경 (2008). 여대생의 사회적 지지, 진로장벽, 자아정체감, 진로결정 수준의 구조모형 분석. 박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 박성욱, 어은주 (1994).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연구. **자연과학**, 대전대학교 자연과학 연구소, 5, 101-110.
- 박아청 (1984). **아이덴티티의 탐색**. 서울: 정민사.
- 박아청 (1994). 자아정체감 지위와 친밀성 지위간의 정준상관분석.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7(1), 64-76.
- 박아청 (1996). 한국청소년의 정체감 발달경향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9(2), 68-78.
- 박아청 (2000). 성인기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관한 일고찰. **사회과학논총**, 19(2), 47-61.
- 박아청 (2003). 한국형 자아정체감검사의 타당화 연구. **교육심리연구**, 17(3), 373-392.
- 박아청 (2004). 청년기 자아정체감의 발달단계의 특성분석. **교육심리연구**, 18(1), 301-312.
- 박아청 (1996). 한국형 자아정체감검사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15(1), 140-162.
- 박아청, 우채영 (2005). 성별에 따른 고등학생의 애착, 자아정체감 및 진로의사결정 수준과의 관

- 계. **교육심리연구**, 22(1), 69-85.
- 박아청, 이승국 (2000). 청소년의 성과 연령에 따라 자아정체감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변인들의 구조 분석. **교육학논총**, 20(2), 255-282.
- 박영란 (2002). 중학생의 자아정체감과 학교적응 및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 박지원 (1985). 사회적지지 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송설희 (1994). 가족유형과 지각된 부모의 수용-거부가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 신연희 (2010). 부모와의 분화 수준 및 집으로부터의 지각된 거리와 대학생활 적응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광운대학교.
- 신순란 (1999). 대학생의 자아정체감과 진로의사결정유형 및 진로결정 수준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 신종임 (2010). 대학생의 부모지지와 자아정체감이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 안선영, 김희진, 박현준, 김태령 (2011).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 II: 총괄보고서. 연구보고 11-R21.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유영미, 문승태 (2005). 고등학생의 사회적 지지 및 자아정체감과 진로결정 수준과의 관계. **진로교육연구**, 18(2), 1-19.
- 이경혜 (1991). 자아정체감과 친밀성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 이난 (2005). 대학생의 리더십 집단활동이 리더십과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효과. **상담학연구**, 6(2), 387-399.
- 이억범 (2007). 대학생의 배경변인에 따른 자아정체감 내적통제성 진로결정수준 간의 관계 분석. **한영논총**, 238-260.
- 이차선 (1998).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형성변인 분석.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정미란 (2005). 비행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집단 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 석사학위논문, 인제대학교.
- 정은숙, 이미숙 (2009).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자아정체감 연구. **생활과학연구논집**, 29(1), 71-98.
- 차영희 (1987). 대학생의 자아정체감 수준과 학업성적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 최정훈, 이훈구, 한종철 (1988). 고교생과 대학생의 심리적 적응수준 향상을 위한 기초 연구.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교실.
- 한상철 (2004). **청소년 심리학**. 서울: 교육과학사.
- 한종철, 지선근 (1999). 부모의 지지 및 지각된 집으로부터의 거리와 대학생의 심리적 적응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및 심리치료**, 11(1), 109-130.

- 한혜경, 김주희 (2007). 현실공간과 가상공간의 자아정체감이 게임중독과 현실부적응감에 미치는 영향: 온라인 롤플레이밍 게임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37, 342-376.
- 허귀선 (1985). 여대생의 자아정체 수준과 대학 만족도와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논총*, 1, 90-101.
- Adams, G. R., Bennion, L., & Huh, K. (1989). *Objective measure of ego identity status: A reference manual*. Logan, Utah: Utah State University.
- Aquilino, W. (2005). Impact of family structure on parental attitudes toward the economic support of adult children over the transition to adulthood. *Journal of Family Issues*, 26, 143-167.
- Avison, W. R., & McAlpine, D. D. (1992). Gender differences in symptoms of depression among adolescent.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3, 77-96.
- Baker, R. W., & Siryk, B. (1984). Measuring academic motivation of matriculating college freshman. *Journal of College Student Personnel*, 25, 459-464.
- Bartle-Haring, S. (1997). The relationships among parent-adolescent differentiation, sex role orientation and identity development in late adolescence and early adulthood. *Journal of Adolescence*, 20(5), 553.
- Bowlby, G. (2000, Spring). The school-to-work transition. *Perspectives*, 43-48.
- Bowlby, G., & Jennings, P. (1999). Youth employment: A lesson on its decline. *Education Quarterly Review*, 5(3), 36-42.
- Bynner, J., Ferri, E., & Shepard, A. (1997). *Twenty-something in the 1990s: getting on, getting by, getting nowhere*. Aldershot: Ashgate.
- Côté, J. E. (2000). *Arrested adulthood: The changing nature of maturity and identity*.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 Côté, J. E., & Allahaar, A. (1996). *Generation on hold: Coming of age in the late twentieth century*.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 Eri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Norton.
- Erikson, E. H. (1982). *The life cycle completed: A review*. New York: Norton.
- Evans, K., & Heinz, W. R. (1994). *Becoming adults in England and Germany*. London: Anglo-German Foundation.
- Furman, W., & Buhrmester, D. (1992). Age and sex differences in perceptions of networks of personal relationships. *Child Development*, 63(1), 103-115.
- Grotevant, H. D., Thorbeck, W., Meyer, M. L. (1982). An extension of Marcia's identity status interview into the interpersonal domain.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1(1), 33-47.

- Hamilton, S. F., & Hamilton, M. A. (2006). School, work, and emerging adulthood. In J. J. Arnett & J. L. Tanner (Eds.), *Emerging adults in America: Coming of age in the 21st century* (pp. 257-277).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Holanhan, C. J., Valentiner, D. P., & Moos, R. H. (1995). Parental support, coping strategies,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 An integrative model with late adolesc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4*, 633-648,
- House, H. S. (1981). *Work stress and social support*. Reading, MA: Adision-Wesley.
- Marcia, J. E. (1966).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ego identity statu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 551-558.
- Marcia, J. E. (1976). Identity six years after: A follow-up.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9*, 117-126.
- Meilman, W. P. (1979). Cross-sectional age changes in ego identity status during adolesc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15*(2), 230-231.
- Muthén, B. O., & Muthén, L. K. (2000). Integrating person-centered and variable-centered analyses: Growth mixture modeling with latent trajectory classes. *Clinical and Experimental Research, 24*, 882-891.
- Nylund, K. L., Asparouhov, T., & Muthén, B. O. (2007). Deciding on the number of classes in latent class analysis and growth mixture modeling: A Monte Carlo simulation study. *Structure Equation Modeling, 14*(4), 535-569.
- Perosa, L., Perosa, S., & Tam, H. (2002). Intergenerational systems theory and identity development in young adult women.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7*, 235-259.
- Peterson, C., Luborsky, L., & Seligman, M. E. (1980). Attributions and depressive mood shifts: A case study using the symptom-context model.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2*(1), 96-103.
- Rasmussen, J. E. (1964). Relationship among ego to psychosocial affectiveness. *Psychological Reports, 15*, 515-525.
- Rosenthal, D. A., Gurney, R. M., & Moore, S. M. (1981). From trust to intimacy: A new inventory for examining Erikson's stages of psychosocial development.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0*, 525-537.
- Tannock, S. (2001). *Youth at work: The unionized fast-food and grocery workplace*.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 Waterman, A. S. (1999). Identity, the identity statuses, and identity status development: A contemporary statement. *Developmental Review, 19*, 591-647.

Waterman, A. S., Geary, P. S., & Waterman, C. K. (1974). Longitudinal study of changes in ego identity status from the freshman to the senior year at college. *Developmental Psychology, 10*, 387-392.

Wynn, Richard R. (1998). *Successful Youth Mentoring*. Loveland: Group Publishing, Inc., 박안석 역. (2003). **도전을 주는 청소년멘토링 2**. 서울: 소망사.

* 논문접수 2012년 8월 1일 / 1차 심사 2012년 9월 12일 / 게재승인 2012년 9월 20일

* 황매향: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와 사범대학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교육학과에서 교육상담으로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경인교육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주요 저서로는 <상담과 심리검사>, <진로탐색과 생애설계>, <학업상담>, <초등교사를 위한 다문화상담 길잡이> 등이 있다.

* E-mail: makhyang@ginue.ac.kr

* 임효진: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교육학과에서 교육상담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미국 UCLA에서 교육심리 전공으로 석사과정을 수료한 후 USC에서 교육심리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전북대학교 교육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며, 주 관심사는 학습동기, 위기 성취도와 위기 동기, 종단연구 등이다.

* E-mail: hyolim@jbnu.ac.kr

* 임지숙: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심리학과를 졸업하였다. 동 대학원 심리학과에서 상담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 E-mail: puresoul-7@hanmail.net

* 손보영: 부산대학교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이화여대 심리학과에서 상담전공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동대학원 심리학과에서 박사학위 과정중이다. 서울시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명지대학교 학생상담실에서 근무하였다.

* E-mail: lovelyoola@hanmail.net

Abstract

Understanding Latent Sub-groups of College Students Based on the Level of Ego-identity

Hwang, Mae-Hyang*

Lim, Hyo-Jin**

Im, Ji-Sook***

Son, Bo-Yo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latent/unobserved sub-groups in emerging adults' ego-identity and to test effects of several variables in determining latent groups. A Latent Class Analysis (LCA) was utilized to analyze data collected from Korean senior college students. First, we examined whether there exist multiple latent groups based on indicators of ego-identity, in relation to gender, age and parental support. Results showed that four subgroups within the sample were found to be qualitatively different as they presented average identity group, low identity group, high identity group and very-high identity group. The four groups were identified based on the levels of 6 indicators (e.g. initiativeness, self-receptiveness, confirmativeness for future, goal orientedness, subjectivity, and intimacy) of ego-identity.

Next, we investigated whether background variables significantly predicted class membership. Covariates such as gender, age, and parental support (e.g. instrumental, emotional, evaluative, and informational support) contributed to classification. Considering the effect of variables, men were more likely to belong to high and very-high identity group while women were more likely to belong to average and low identity group. Also, older students tended to belong to high identity group than younger students. Students who perceived higher parental support were likely to belong to average and high identity group. However, gender, age, parental support didn't predict classification significantly for very-high identity group as compared to other groups. Suggestions and implications for understanding the types of subgroups in emerging adults' ego-identity were discussed.

Key words: college students, ego-identity, latent class analysis, developmental task

* First author, Professor,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Corresponding author, Assistant Professor, Chonbuk National University

*** Ewha Womans University

**** Ewha Womans University